

모스크바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회를 다녀와서

정 희 원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사업의 하나로, 우리 연구원의 송민 원장님과 함께 1996년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열흘 동안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둘러 보고 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주요 일정

6월 26일(수). 오전 11:55 서울을 출발한 비행기는 약 8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무사히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세레메체보 공항에는 한국 대사관의 유춘근 교육관과 이발렌틴 한국어 교육자 협의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숙소로 예정된 스푸트닉 호텔에 여장을 풀고 시내에 나가 저녁 식사를 한 후 11시 경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6월 27일(목). “모스크바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회” 개강식을 하였다. 10:30부터 시작된 개강식에는 약 30여 명의 수강생들과 교육관, 공보관, 총영사 등이 참석하였다. 개강식을 마치고 한글의 우수성과 특징을 주제로 한 원장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의 활동에 들어갔다. 다음 시간에는 필자가 조사의 쓰임과 문장 성분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오후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한국 대사관을 방

문하였다.

6월 28일(금). 오전 9:30부터 강의를 시작하였다. 첫 시간은 원장님이 표준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둘째 시간은 필자가 피사동문과 시체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오후에는 모스크바대학과 레닌 언덕을 방문하였다. 모스크바대학 바로 앞에 있는 레닌 언덕은 날씨가 좋으면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비바람이 심하게 쳐서 구경 나온 사람들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토요일(29일)과 일요일(30일)은 강의 일정 없이 자유 시간을 가졌다. 토요일 오전에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영 굼백화점에 구경을 갔다. 최대의 백화점이라고는 하지만 천장에서 군데군데 비가 새고 있었고 쇼핑을 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다. 점심 식사 후에는 젊은이들의 거리라는 아르바트 거리를 구경하였다. 길 양쪽에 각종 상점과 카페가 들어서 있고 빗속에서도 관광객들의 초상화를 그려 주는 무명 화가들이 손님을 끌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붉은 광장과 크렘린을 구경하였다. 오후에는 모스크바 교외에 있는 이스마일로바 자유시장에 구경을 갔다. 노점이 길게 이어져 있는 이 시장에서는 주로 나무로 만든 인형이나 양털로 짠 직물류 등 수공예품과 골동품을 팔고 있었는데 손님은 대부분 외국 관광객들이었다. 시장 구경을 하고 레닌 언덕에 갔다. 비가 내리던 날과는 달리 많은 관광객과 노점상들이 나와 있었다. 이곳에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말로 흥정을 하는 상인들이 있어서 최근 몇 년간 달라진 러시아와 우리 나라의 관계를 실감하게 하였다.

7월 1일(월). 오전 9:30부터 강의를 시작하였다. 첫 시간은 원장님이 우리말의 예절에 대해서, 둘째 시간은 필자가 남북한 어휘 차이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오후에는 모스크바 제1086 한국어학교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매우 시설이 좋고 교사진이 훌륭한 학교로 이름이 난 곳으로, 고려인들의 자랑거리라고 하였다. 학교에 들어서자 동포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교강실에서 선생님들과 우리말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학교를 둘러보았다.

7월 2일(화). 연수회 마지막 날이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나와 있었다. 아침 첫 시간은 우리말의 예절, 둘째 시간은 경어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머지 시간은 국어 사전 찾기와 짧은 글짓기를 하였다. 곧이어 수료식을 하였다.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을 만들어서 나눠 주었다. 저녁에는 원장님 초청 만찬이 있었다. 그 동안 우리 파견자들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교육관과 공보관, 그리고 모스크바대학 조선어학과의 마주

르 교수, 이선자 교수, 엄넬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어학교 선생님 등 주요 인사들이 초대되었다.

7월 3일(수). 아침 일찍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하였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한때 러시아의 수도였던 곳으로, 모스크바 다음 가는 학술과 문화의 중심 도시이다. 비행기로 한 시간 가량 걸려서 도착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공항에는 잡지 “고려사람”의 발행인인 오바체슬라브와 민박 가정의 안주인인 방스베타가 나와서 맞아 주었다. 민박 동포 가정에 짐을 풀고 시내를 둘러보았다.

7월 4일(목).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여제가 별장으로 사용했다는 여름 궁전에 가 보았다. 오후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을 둘러보았다. 모스크바 대학 보다는 훨씬 학구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이 곳은 “한국어 문법”의 저자인 람스테드가 연구 활동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학교 내부의 190미터에 달하는 복도는 이 학교의 명물로서, 복도 한 쪽에는 17·18세기에 간행된 책들이 보관된 서가가 놓여 있었고 또 한 쪽에는 이 학교 출신 학자들의 사진과 인물 조각상이 놓여 있어서 학교의 오래된 역사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7월 5일(금). 상트 페테르부르크 고려인협회와 한글학교를 방문하였다. 방학 중인데도 여러 분들이 나와서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다. 하루 전부터 준비를 하여 손수 음식을 마련해서 우리 파견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때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던 날 공항에 마중을 나왔던 오바체슬라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잤다.

7월 6일(토).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오전에는 교외에 있는 예카테리나 궁전과 어린 시절 푸슈킨이 공부했다는 귀족학교에 갔었다. 저녁에는 원장님 초청 만찬이 있었다. 러시아 출장 내내 파견자들을 동행하며 안내를 맡아 주었던 이발렌틴 회장과 박이선 한글학교 교장, 박세르게이 고려인협회 회장, 이젠나지 고려인협회 이사, 민박 가정의 방스베타 부부 등이 초대되었다.

7월 7일 일요일. 일정의 마지막 날이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했다. 모스크바 공항에는 교육관이 나와서 우리 일행의 출국 수속을 도와 주었다. 오후 5:30.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출장 일정을 무사히 마친 우리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3.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한국어 교육의 실상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이면서 동시에 독립국가 연합의 수도로서, 명실상부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인구 천만의 도시인 이 곳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6,000명 정도로 전체 독립국가 연합에 있는 동포 50만 중의 극히 일부만이 이 곳에 살고 있다. 이들 중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120명, 학생은 1,300여명 정도 된다. 현재의 고려인들은 대개 이민 3-4세들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현재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어로서 익힌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이민족 중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모스크바의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는 초·중등 과정의 정규 학교인 제 1086 러시아-한국어학교를 들 수 있다. 이 학교는 모스크바시 교육국과 모스크바 고려인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1992년에 개교하였다. 이 학교에는 50여 민족의 8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고려인은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수업은 러시아어로 진행되며 오전에는 러시아의 교과 과정에 따른 학과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한국의 전통과 풍습, 한국 요리, 한국무용과 노래,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배운다. 교재는 이 학교의 동포 선생님들이 대학의 관련 학과와 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교의 교사들과 협의하여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재의 연구를 위해서는 남북한에서 보내 온 자료들을 참고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도움도 많이 받는다고 한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중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 5% 정도인데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민 5-6세(초·중·고 대학생 및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한국어학교는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고려인들뿐 아니라 이민족들에게도 훌륭한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기관인 1086학교 외에 모스크바에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과 국제관계대학, 모스크바 동양대학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우리말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원 산하의 동방학 연구소와 언어학 연구소에서도 우리말을 연구하고 있다.

정규 학교 이외에 한글학교라는 이름의 사설 강습소도 운영되고 있다. 모스크

바 지역에만 40여 개, 독립국가연합 전체에는 약 200여 개의 한글학교가 있다. 이곳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해 강의를 하는데, 기초 회화를 중심으로 가르쳐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최근에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교회와 한국 유학생들도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인 교회는 대부분 우리말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배 후에도 우리말을 통해서 동포들 상호간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유학생들과 선교사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 비전문가에 의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만난 한 유학생은 우리말 어문 규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우리말 문법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한편 이들을 체계적으로 잘 훈련시킬 수만 있다면 인력이 부족한 러시아 지역에서 훌륭한 교사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스크바와는 달리 상트 페테르부르크에는 대학의 조선어학과를 제외하고는 우리말을 가르치는 정규 교육 기관이 없다. 우리가 방문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한글학교는 사실 강습소로 일과 후에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초급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는 약 2,000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역시 우리말을 전혀 모른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한글학교는 1990년에 수확자였던 박이선 교장 선생님의 힘으로 시작되었다. 교장 이외에 달리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도 한 고려인 사업가가 사무실 한 칸을 빌려 주어서 그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학생 수는 약 12~15명 정도이며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특별히 마련된 교재는 없었고, 교장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잡지 등에 실린 글을 독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한글학교 사람들은 그곳에도 모스크바와 같은 정규 교육 기관이 생겨나서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4. 연수회 활동

모스크바에서의 교사 연수회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강의 일수는 4일이었고 한 과목당 1시간 30분씩 오전에만 강의를 하였다. 수강생들은 30여 명 정도 되었으나, 4일간 지속적으로 출석하여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24명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포 교사들이었지만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의 조선어학과 교수, 연구원이나 그 밖의 직업적 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민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이는 대개 40대 이상이였다.

강의는 원장님께서 우리말의 예절과 표준어의 중요성을, 필자가 기초 문법과 남북한 언어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언어 예절은 말을 배우면서 부딪치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들(호칭어, 지칭어, 인사말)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수강생들이 매우 재미있어 하였다. 문법은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문장 예들을 많이 들어 가면서 설명하였다. 모스크바에 가기 전에 들은 바로는 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했는데, 직접 만나 본 바로는 생각보다는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듣는 것에는 별 지장이 없어 보였으며, 다만 말을 하는 것은 개인차가 많았다.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되도록 수강생들을 직접 참여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강의자가 러시아 어나 러시아 어 문법을 잘 알고 있다면 훨씬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재 외에 가지고 간 참고 도서는 수료식 때 선물로 주었다. “심청전”, “홍길동전” 등의 고전 소설류와 우리 역사 이야기, 쉽게 풀어 쓴 우리말의 예절 등이었는데 동포 교사들은 모두 학교에 가져가서 학생들에게 읽히겠다고 하였다. 특히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선물은 우리 나라 지도와 사전(국어 사전, 노한 사전)이었다. 우리 나라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서는 우리 나라 지도를 보는 것이 무척 기쁜 모양이었다. 다만 한 가지, 국어 사전은 초등학생용이라서 교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듯 싶었다.

5. 결론

이번에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보니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은 이전까지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한국이 알려지면서 조국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이민족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높아지면서 우리말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보였다. 문제는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시설과 교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한국 공보원이 있어서 그곳에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갖추어 놓고 있었는데, 이런 곳에 한국어 전공자가 있어서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말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교사 확보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현재 우리말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인력들은 대부분 기업으로 진출하고 특별히 사명감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이 교사로 남아 있는 형편이었다. 실력 있는 교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 만난 한국어 교사들은 대부분 교재 연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최근에 우리 나라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우리의 교과서 등은 대개 갖추고 있었지만 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들의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싶어했으며 이를 위해서 교사들만을 위한 특별 연수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남북한 언어 규범이 통일되지 않은 것을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구어는 북한어에 가깝게 들렸으나 문법이나 맞춤법은 남한의 규범을 따르고 있었다. 특히 모스크바 1086 러시아 한국어학교 교사들은 남한의 문법과 어문 규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도 남한의 규범을 표준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대학의 언어학과나 대학 수준의 한국어 연구 기관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 강습소에서도 대부분 남한의 책이나 자료를 기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해외 동포들의 이러한 혼란을 덜어 주기 위해서도 남북한 어문 규정의 통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